

베트남 다문화가정 의생활 실태조사

- 의복행동과 전통복식 태도를 중심으로 -

손진아 · 남윤자 · 권준희⁺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강사 · 서울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 한성대학교 패션디자인학과 강사⁺

Study on Clothing Life of Korea-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 Focus on clothing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dresses -

Jin Ah Son · Yun Ja Nam · Jun Hee Kweon⁺

Lecturer, Graduate School of Design, Konkuk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Clothing and Textile, Seoul National University

Lecturer, Division of Fashion Design & Business, Hansung University⁺

(투고일: 2013. 5. 18, 심사(수정)일: 2013. 8. 12, 게재확정일: 2013. 8. 16)

ABSTRAC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provide basic data to study the life and culture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by taking a look at the clothing behaviors and attitudes toward traditional dresses. To this end, quantitative research was conducted on Korea-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and Korean families. The surveys of the Korean families were completed by 250 married women in Seoul, and those of Korea-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by 104 married Vietnamese women living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crosstabs and χ^2 -tes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arison of clothing behaviors of the Korean families and the Korea-Vietnam multicultural families found that they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values towards clothes, clothes shopping orientation and clothes purchasing behaviors. The Korean women were more involved in clothes and fashion-oriented than their Vietnamese counterparts. However, the Vietnamese women in their 20s were likely to rely more on social trends than their own needs when purchasing clothes compared to their Korean counterparts. Korean families preferred to shop in department stores, while the multicultural families relied more on discount stores and outlets. Second, the comparison of the Korean families and the Korea-Vietnam families in attitudes toward their own traditional dresses and how often to wear them showed statistically meaningful differences. The Korean group ha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 Hanbok, the Korean traditional dresses than the Vietnamese group. The Vietnamese women showed more interest in information on Hanbok than their Korean counterparts. They also were wearing the Korean traditional dresses more often than the Korean families. In addition, the Vietnamese women showed a stronger tendency than the Korean women that they took pride in their country's traditional dresses and believed that they were beautiful.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다문화생활교육센터(Multicultural Human Ecology Center(MHEC))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Jun Hee Kweon, e-mail: sillalala@hanmail.net

Key words: clothing behavior(의복행동), multicultural family(다문화가정),
traditional dress attitude(전통 복식 태도),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an(베트남 결혼이주여성)

I. 서론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으로 인한 이민자의 증가는 우리사회가 갖고 있던 단일민족의 개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국가 구성원 간 고유의 문화가 어우러지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의미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포함된 가정을 총칭하는 용어로 2003년 건강시민연대가 제안하여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 지원법¹⁾에 의하면 여기에는 국제결혼에 의한 이민자가정, 외국인 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 등이 해당한다. 이 중 국제결혼에 의한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주목할 만한데 보건복지가족부 통계자료²⁾에 의하면 총 결혼건수에서 국제결혼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4년에는 1.7%이던 것이 1995년에는 3.4%로 증가하였고,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10%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국제결혼은 그 숫자뿐 아니라 현상에서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과거 국제결혼은 한국여성과 선진국 남성의 결혼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제는 한국 남성이 후진국 여성과 결혼하는 경우가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³⁾ 특히 국제결혼의 유형 중 한국 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전체 국제결혼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 국가도 다양해져서 90년까지 중국, 동포, 일본, 필리핀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에는 베트남, 태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트남여성과의 결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⁴⁾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간의 국제결혼은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지만 베트남전쟁 등의 이유로 한동안 단절된 상태였으나 1992년 국교가 재개된 이후 국제결혼도 재개되어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⁵⁾ 이러한 현상은 베트남 여성이 한국인과 외모나 문화적으로 많은 유사점을 가지고 있고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역사적 친숙감이 있기 때문으로 파악되며⁶⁾ 최근 베트남의 높은 실업률과 빈곤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 또한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이 증가한 원인으로 파악된다.⁷⁾

이와 같이 결혼 이민자 여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다문화 가정 내 언어문제⁸⁾⁹⁾, 결혼 이민자들의 생활실태와 적응¹⁰⁾¹¹⁾¹²⁾,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교육¹³⁾¹⁴⁾, 다문화 가정 복지¹⁵⁾¹⁶⁾ 등에 국한되어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 여러 나라의 생활양식을 뜻하며 생활양식은 의식주를 근간으로 이뤄지므로, 여러 나라의 의식주와 관련된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문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¹⁷⁾ 특히 의생활은 인간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가는 문화적 적응 수단 중 하나로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¹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의 섬유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최인려¹⁹⁾의 연구와 다문화 가정 여성과 자녀들의 계절별 착의 습관과 옷의 구매실태를 질적으로 살펴본 이윤정²⁰⁾의 연구 외에는 다문화 가정의 의생활 문화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지향하는 건강한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을 위하여 다양한 다문화 가정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실시되었다. 1차적으로 의생활문화 속에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이민 여성 간 어떤 문화적 간극이 존재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결혼이민자 중 베트남 출신 여성 이민자의 뚜렷한 증가에 주목하고 한국 남성과 베트남 여성의 결혼으로 이루어진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생활문화 중 의생활분야에 집중하여 한국가정과 베트남가정 각각의 입장에서 각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를 포함하여 현대 복식에 대한 의복 가치관과 의복행동을 비교하여 살펴봄으

로서 극복되어야 할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의생활문화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사회통합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베트남의 사회문화 특성

베트남은 1990년대 이후 개혁정책을 통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루고 있으며 연간 경제성장률은 2004년 이후 8%대를 기록하면서 아시아 국가 중 중국에 이은 두 번째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²¹⁾ 2010년 기준 베트남의 GDP는 약 1,000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대략 3,100달러로 한국의 1/10 수준이다. 베트남 일반사람들의 한 달 봉급은 평균 약 40만 동에서 60만 동 사이이며 이는 우리나라 돈으로 3~4만 원정도이다.²²⁾ 베트남은 총 노동인구의 60% 이상이 아직 농림수산업 같은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베트남에서 시집은 여성들 대부분은 가난한 농가의 딸들이고, 평균학력 수준이 중졸로 학력 수준이 낮으며, 대부분 직업이 없었고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해도 공장의 노동자들인 경우가 많다.²³⁾

베트남 사회는 유교와 불교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으며 전통적 문화생활에 있어 가족과 친척들에 대한 의무가 강하게 작용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²⁴⁾ 베트남의 혼인풍습은 '놈째오'라는 것을 따르도록 명시되고 있는데, 이는 베트남 시골마을의 절대적인 마을 내규로서 남자가 장가를 가려면 마을에 물질을 기부해야 하는 것이다. 오늘날에는 일부 사라지고 있으나 예전에는 절대적인 것이었으며 상당 수 여자 집안에서 무리한 혼인품을 요구하기도 하였고²⁵⁾, 한국 내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경우 이러한 문화적 차이로 인해 한국인 남편들과의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결혼연령은 농촌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하는 딸의 경우 16세부터 결혼시키려는 부모들이 많으며 결혼상대자의 연령 차이는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²⁶⁾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나 국제결혼을 통하여 한국으로 와서 가정을 꾸린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의 경우 가치관, 풍습과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혼란으로 가족생활 적응 문제가 생활전반에 나타나고 있다.²⁷⁾ 그러나 이들에게 한국사회의 적응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와 동일성에 대한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문화상호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주류문화로의 일방적인 동화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강요하고 있어 국제결혼의 양적 증가추세에 따라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²⁸⁾

2. 다문화가정의 의생활 특성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모국의 문화적 관습과 기후 등에 의해 이미 형성된 의생활 양식과 착용습관 등이 있어 결혼이주 후 의생활 특성에 있어 한국여성들과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²⁹⁾, 식생활 문화에 비해서는 적응하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복문화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여성의 경우 대부분이 베트남 남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씨가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 베트남 남부에는 건기와 우기밖에 없고, 제일 추울 때가 영상 18도 정도 되므로 한국의 추운 날씨에서 지내는 것은 많이 힘든 일이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날씨가 더워 얇은 옷을 입고 집 밖에 나가는 것이 가능한 일이나 한국에서는 절대 불가하며, 스타일에 있어서도 베트남에서 가져온 옷들을 모두 버리고 일방적으로 한국 스타일로 바꾸라는 요구를 받기도 한다.³⁰⁾

의류학 분야에서 국내 다문화가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의복행동 실태와 착용습관 등 주로 이들을 대상으로 한 탐색적 연구들이 진행되어왔다. 다문화 가정의 의복 실태와 섬유 선호도에 대해 조사한 최인려³¹⁾에 따르면 다문화 가정의 여성들은 자국에서 착용습관이 한국에서의 의복 소유 개수나 선호 섬유 등 의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의 경우 한국가정보다 낮은 소득수준인 경우가 많아 의류류 구매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의류 세탁은 가정에서 색상과 섬유 구분 없이 세탁하고 전문세탁소의 이용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 가정 여성의 계절별 착의습관과 구매실태를 파악하여 한국에서의 의생활 문화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이윤정³²⁾의 연구를 살펴보면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자신의 국가에서 이미 형성된 내한·내열성에 의한 착의량과 모국의 문화적 관습 등에 의한 착의습관이 한국에서도 지속되며, 이러한 특성은 그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복 구매 장소는 대형마트가 가장 이용 빈도가 높았고, 의복에 대한 정보를 잘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복비 비율은 소득의 10% 정도로 우리나라 피복비 비율 5%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류학 분야에서 이민자들의 문화적응과 의생활 특성 및 의복행동과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들은 미국 내 중국 노동 이민자 집단이나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많이 진행되었다. Shim, Chen³³⁾은 미국 내 거주하는 중국가정의 의복쇼핑성향에 따른 미국 문화 적응수준과 인구통계학적 특성들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높은 수준의 의복쇼핑성향을 가진 집단이 낮은 수준의 의복쇼핑성향을 가진 집단에 비해 사고, 언어적응, 라이프스타일 적응 등 전반적인 문화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내 거주하는 한국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정도에 따른 의복관여도, 쇼핑동기, 패션 준거집단의 영향을 살펴본 이윤정, 이재일³⁴⁾은 문화적응 정도에 따라 소비자 집단별 의복행동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런던에 살고 있는 20명의 아프리카 출신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Gbadamosi³⁵⁾는 의복적응이 기후상태, 사회적 요소, 종교, 개인적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을 밝혀내었고 이것이 전반적인 문화적응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였다. Youn, Lee³⁶⁾는 서울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화적응 수준에 따라 의복관여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한국 문화 채택 수준이 높고 자국문화 유지 수준이 낮은 집단이 의복관심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이민자들의 전반적

인 문화적응 수준은 의생활문화 적응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의복행동의 차이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의생활 특성을 의복 쇼핑성향, 의복 구매행동, 의복 가치관 등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이러한 특성들이 한국 가정 여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두 집단 간 의생활문화에 나타나는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3. 다문화가정의 전통복식 태도

전통복식이란 특정지역이나 국가에서 오랜 세월을 두고 독자적으로 발전시켜온 그들 고유의 복식을 말한다. 이러한 전통복식은 특정문화 속에서 사회변천에 따라 전승, 발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고유한 사회적, 자연적 환경이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문화만이 가지는 사회적 관습은 물론 정신세계까지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³⁷⁾

한복은 우리 고유의 전통의상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족복식이다. 또한 전통적인 우리 삶을 이야기 할 때 누구나 떠올리는 생활문화의 일부분이지만 현대 우리 생활 속에서는 과거의 민족문화유산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³⁸⁾ 195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다수가 한복을 일상복으로 착용하였으나³⁹⁾ 70년대 이후부터 명절복과 예복으로써의 용도가 높아졌고 외출복으로써의 용도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었으며, 학력 또는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한복을 의례적인 예복 용도로 구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⁴⁰⁾⁴¹⁾

베트남의 전통복식은 아오자이(Aodai)로 '긴 옷'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중국의 전통복을 베트남의 풍토와 민족성에 동화시켜 만든 것으로, 상의는 중국복의 영향을 받아 옆이 길게 트여있고 깃은 차이나스 칼라(chinese collar)로 되어 있다. 원래는 상류계급의 의복이었으나 평상복과 예장복으로 일반화되었다.⁴²⁾ 여러 디자인으로 변형되어 지금도 많이 착용되어지고 있으며, 아오자이는 항공사승무원, 고급식당 종업원, 은행직원 등 다양한 기업의 유니폼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길거리에서 한복을 입은 여성을 만나는 것이 그다지 흔치 않은 일이지만 베트남에서는 아오자이를 입은 여성이 눈에 쉽게 띈다.⁴³⁾

전통복식 및 비교문화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전통복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나 착용행동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데 일치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와 구매 및 착용은 연령, 결혼여부,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인희 외⁴⁴⁾는 한복에 대한 태도를 '한복에 대한 자부심' 요인과 '한복착용의사' 요인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한복에 대한 자부심 요인이 한복착용의사 요인보다 높은 값을 보여 비록 한복에 대한 인지적, 감정적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라든가 그것이 한복착용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콕태기, 남미우⁴⁵⁾의 연구도 대학생의 경우 한복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나 전반적으로 한복의 구매의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형 외⁴⁶⁾는 전통한복 소유량은 평균 1인당 2.49벌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을 계기로 한복을 마련하기 시작한다고 하였으며, 착용빈도는 연간 1회 내지 3회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착용빈도는 주성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 규모가 큰 지역에서 성장한 여성일수록 착용빈도는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0대와 30대를 중심으로 한복에 대한 태도와 착용행동을 살펴본 이주현 외⁴⁷⁾는 이들이 한복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고 한 반면, 황준섭⁴⁸⁾은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이 한복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앞으로도 주로 입을겠다는 응답이 많아 연령에 따라 한복에 대한 태도와 착용행동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차이를 연구한 이희남, 한승희⁴⁹⁾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대학생은 일본 대학생보다 한복에 대한 자부심은 더 높았으나 전통복식에 대한 세부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 대학생들은 전통복식인 기모노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으나 착용에 있어 불편함과 가격 때문에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었다. 즉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 모두 대체적으로 자국의 전통복식은 아름답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

화상품이나 착용 및 구매와 관리의 어려움으로 실용적이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전통복식의 대한 태도는 경제, 문화, 산업화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사료되며, 일상생활에서도 민속복식 착용률이 비교적 높은 베트남의 경우⁵⁰⁾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가 한국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II.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연구문제 1. 한국가정과 비교분석을 통해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복행동에 대하여 살펴본다.

- 1-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가치관 차이를 살펴본다.
- 1-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쇼핑성향의 차이를 살펴본다.
- 1-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구매행동의 차이를 살펴본다.

연구문제 2. 한국가정과 비교분석을 통해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전통복식 태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 2-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본다.
- 2-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 보유 및 착용실태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다.
- 2-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자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본다.

2. 측정도구

이상과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가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의복에 대한 가치관, 의복 쇼핑성향, 의복 구매장소, 월평균 의복 구입비, 각 국 전통복식(한복,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 전통복식 착용 및 보유실태 및 응답자의 인구 통계

적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의복에 대한 가치관은 의복을 선택하거나 착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의복에 대한 태도나 행동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특성으로서⁵¹⁾ 선행연구⁵²⁾⁵³⁾에서 총 7문항을 추출하여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리커트 척도는 홀수로 단계를 나누어 '보통이다'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긍정과 부정을 대칭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통이나, 연구내용에 따라 중립적 응답을 막고 긍정 혹은 부정의 정확한 응답을 얻기 위해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의도적으로 짝수 단계를 사용할 수도 있다.⁵⁴⁾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이 한국어가 미숙한 점을 고려하여 중립적인 응답에 치우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5점 리커트 척도에서 '보통이다'를 제외하고 짝수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의복쇼핑성향은 의복쇼핑에 대한 소비자 개인의 행동, 흥미와 의견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패턴화된 의복 쇼핑양상으로⁵⁵⁾ 선행연구⁵⁶⁾⁵⁷⁾에서 6문항을 추출하여 역시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의복 구매장소는 정장과 캐주얼 구매할 상황으로 나누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매처를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각 국 전통복식인 한복과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는 정인희 외⁵⁸⁾, 권수에 외⁵⁹⁾, 조우현, 김문영⁶⁰⁾의 연구를 참조하여 심미성, 전통성, 실용성으로 분류하였으며, 본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심미성 3문항, 전통성 4문항, 실용성 5문항 총 12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전통복식 착용실태는 일년 간 한복을 몇 번이나 착용하는지 선다형으로 측정하였으며, 전통한복 보유실태는 성인여자 한복, 남자한복, 아동 한복, 두루마기, 부모님 한복 등으로 나누어 몇 벌이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선다형으로 측정하였다.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성별, 결혼여부, 거주지, 연령, 학력, 직업, 경제적 수준 등에 대한 내용을 선다형 및 자유기술형으로 측정하였다.

3.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서울과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문헌조사를 통해 구성된 설문지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한 후 일부 문항을 수정하여 최종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전문 상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법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한국가정은 2009년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내 거주 250가정의 여성을 그 대상으로 하였으며, 베트남다문화 가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서울(43가구, 41.3%), 경기(53가구, 51.0%), 인천 지역(8가구, 7.7%)에 거주하고 있는 104가구의 베트남 출신 부인에게 수거한 설문지 104부가 통계처리에 이용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통계적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한국 가정 여성들의 학력은 고졸이 130명(52.2%)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대졸이 76명(30.5%)이었다. 직업은 전업주부가 136명(54.6%)이었고, 직업을 가진 여성이 106명(42.6%)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족 총수입은 301~400만원이 78명(31.3%)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201~300만원이 59명(23.7%), 401~500만원이 52명(20.9%)으로 그 다음이었다. 둘째,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의 학력은 고졸이 57명(54.8%)이었고 중졸이 25명(24.0%), 대졸이 6명(5.8%)이었다. 직업은 83명(79.8%)이 전업주부로 나타났으며, 직업을 가진 여성이 21명(20.2%)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족 총수입은 201~300만원이 41명(39.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101~200만원 27명(26.0%), 301~400만원 18명(17.3%)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을 비교하였을 때 한국가정의 여성이 베트남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 여성에 비해 학력이 높았으며, 월평균 가족 총수입도 높은 수준이었고 직업을 가진 여성의 비율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생활특성을 비교함에 있어 여러 가지 영향요인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 중 연령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출신국가와 소속가정의 특성에 따른 차이만을 살펴보기 위하

여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연령대 분포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할당표본표집법에 따라 표본 추출한 한국가정의 경우는 연령대별 50명씩 고루 분포되었으나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경우는 연령대별 고루 표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20대(72명, 70.2%)와 30대(30명, 28.8%)에 집중되어 표집되었다. 베트남 농촌에서는 고등학교나 대학에 진학 못하는 딸은 16세부터 결혼시키기도 하며 결혼상대자와의 연령 차이는 크게 문제 삼지 않아 일찍 결혼시키려는 부모가 많기 때문에⁶¹⁾ 이런 결과가 나타났으리라 추측된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9.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요인분석, 독립표본 t-검정, 교차분석 등의 통계기법이 이용되었다.

IV. 결과 및 논의

1. 한국가정과 비교분석을 통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복행동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복행동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의복에 대한 가치관, 의복쇼핑성향, 의복구매행동을 20대와 30대 여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가치관 차이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가치관을 살

펴보기 위하여, 고가상표 추구, 사회적 지위 반영, 무난한 스타일 추구, 개성추구, 편의성 추구, 유행추구, 의복 무관심의 총 7문항을 측정하였으며 각 문항별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표 1>과 같다.

각 문항들의 평균을 살펴본 결과 '나는 유행을 덜 타는 무난한 스타일을 추구한다'는 문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문항들에서 한국여성들이 베트남여성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한국여성이 20대 베트남 여성에 비해 고가상표 지향, 사회적 지위 반영, 유행추구 등에 관심을 많이 쓰고 있었으며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의복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0대 한국여성과 베트남 여성을 비교한 결과 30대 한국여성이 30대 베트남여성에 비해 고가상표 지향인 것으로 나타나 문화권에 따라 의복 가치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쇼핑성향의 차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과 한국가정 여성들의 쇼핑성향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의복쇼핑성향을 계획구매, 저가지향 쇼핑, 쇼핑 고관여 쇼핑, 상표지향 쇼핑, 동조적 쇼핑, 실용적 쇼핑 총 6문항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으며 역시 20대와 30대 여성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의복 가치관 결과와 유사하게 20대 여성과 30대 여성 모두 한국여성들이 베트남여성들에 비해 쇼핑

<표 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여성의 의복 가치관 차이

의복 가치관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국	베트남	t	한국	베트남	t
나는 인지도 높은 고가 상표의 옷을 원한다	2.70	2.14	4.06***	2.54	2.13	2.53*
의복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	2.82	2.45	2.73**	2.80	2.57	1.36
나는 유행을 덜 타는 무난한 기본 스타일을 선호한다	2.72	2.78	-0.51	2.86	2.90	-0.28
나는 평범하지 않고 뭔가 남과는 다른 옷을 원한다	2.42	2.19	1.69	2.38	2.13	1.81
나는 남과 상관없이 내게 편하고 자유로운 옷을 원한다	2.82	2.88	-0.51	2.82	2.70	0.71
유행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초라하게 느껴진다	2.80	2.22	4.09***	2.64	2.20	2.72
나는 옷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2.10	2.40	-2.23*	2.28	2.53	-1.78

*p<.05, **p<.01, ***p<.001

〈표 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여성의 의복쇼핑성향의 차이

의복 쇼핑성향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국	베트남	t	한국	베트남	t
나는 충동구매를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만 옷을 구매한다	3.00	3.10	-0.67	2.94	2.97	-0.154
나는 의복쇼핑을 할 때 더 싼 가격의 옷을 찾기 위해 여러 옷들을 비교해 본다	2.78	2.96	-1.27	2.92	3.03	-0.460
내가 좋아하는 옷은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더라도 구매한다	2.98	2.38	3.94***	2.76	2.27	2.95**
나는 유명상표나 유명 디자이너의 옷을 구매하는 편이다	2.34	1.82	3.88***	2.28	1.73	3.49***
가능한 한 내 주위 사람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구매한다	2.28	2.59	-2.40*	2.46	2.67	-1.15
나는 옷을 구매할 때 미적인 측면보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한다	2.72	2.44	2.08*	2.78	2.40	2.98**

* $p < .05$, ** $p < .01$, *** $p < .001$

고관여 성향, 상표지향 쇼핑성향, 실용적 쇼핑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한국여성들이 베트남여성에 비해 훨씬 더 패션지향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대 베트남 여성의 경우 동조적 쇼핑성향이 한국 20대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교가 지배적인 가치관으로 작용하고 있는 베트남의 문화적 특성일 수도 있으나⁶²⁾, 하밍타잉⁶³⁾의 연구에 따르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 외국 사람이라는 티가 나지 않도록 한국 스타일로 바꾸라는 남편의 요구를 받기도 한다고 하여 한국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동조성향이 더 나타날 수도 있으리라고 판단된다.

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의복 구매행동의 차이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가정 여성들의 의복 구매행동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의

복 구매 장소 및 월평균 의복 구입비를 비교해 보았다.

첫째, 의복 구매 장소는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정장과 캐주얼 주 구매처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장(재킷) 주 구매처의 경우 한국가정의 여성은 백화점이 많은 반면 베트남 여성의 경우 대형할인점과 할인점의 비율이 높았다. 캐주얼(티셔츠) 주 구매처의 경우 한국가정의 여성은 백화점과 온라인 쇼핑몰의 비율이 높은 반면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여성은 대형할인점과 일반시장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의복 구매비용을 살펴보기 위해 각 집단의 월평균 의복 구입비를 비교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한국가정의 여성들은 20대의 경우 10만원에서 20만원이 46.0%(23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30대 여성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30.0%(15명), 10만원에서 20만원이 34.0%(17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

〈표 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 여성의 월평균 의복구입비 차이

월평균 의복 구입비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국	베트남	한국	베트남
10만원 미만	10(20.0%)	36(49.3%)	15(30.0%)	13(43.3%)
10~20만원	23(46.0%)	17(23.3%)	17(34.0%)	9(30.0%)
20~30만원	9(18.0%)	7(9.6%)	12(24.0%)	5(16.7%)
30~40만원	3(6.0%)	5(6.8%)	4(8.0%)	3(10.0%)
40~60만원	2(4.0%)	5(6.8%)	1(2.0%)	0(0.0%)
60만원 이상	3(6.0%)	3(4.2%)	1(2.0%)	0(0.0%)
합계	50(100.0%)	73(100%)	50(100%)	30(100%)

트남 다문화 가정 결혼이주여성은 20대와 30대 모두 10만원 미만이 49.3%, 43.3%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전반적으로 한국 가정 여성에 비해 월평균 의복 구매비용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다문화 가정이 한국 가정보다 낮은 소득 수준으로 의류류 구매 시 저렴한 가격을 선호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최인려⁶⁴⁾의 연구결과 및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의복 구매장소는 대형마트가 가장 많고 지하상가나 시장에서 구입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윤정⁶⁵⁾의 연구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2. 한국가정과 비교분석을 통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각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

본 절에서는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각국 전통복식, 즉 한복과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를 비교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첫째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에 대한 일반적 태도차이를 살펴보고, 둘째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의 보유와 착용실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와 한국가정의 한복에 대한 태도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각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1)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에 대한 일반적 태도차이

한복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복은 아

름다운 민속의상이다.', '나는 한복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등 8문항을 4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한복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 8문항에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여성 20대, 30대의 태도를 비교 분석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복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한국여성과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부정적 태도인 '한복은 보기에는 좋으나 활동성 때문에 입기에는 망설여 진다'와 '한복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므로 양장을 선호한다'라는 의견이 베트남 여성에 비해 한국 여성의 평균이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대 베트남 여성과 30대 베트남 여성 모두 한국 20대, 30대 여성들에 비해 한복관련 정보물을 더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 전통복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2)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 보유 및 착용실태에 대한 차이

첫째,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한복보유 실태는 상하 한벌, 두루마기, 남아한복, 여아한복, 부모님한복 보유수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본 결과는 측정항목수도 많고 각 항목별로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전통한복 보유실태 이해에 더 도움이 될 것으

<표 4>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 여성의 한복에 대한 태도 차이

한복에 대한 태도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국	베트남	t	한국	베트남	t
한복은 아름다운 민속의상이다	3.26	3.38	-1.29	3.32	3.33	-0.97
나는 한복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	2.88	2.79	0.72	2.88	2.97	-0.52
한복은 보기에는 좋으나 활동성 때문에 입기에는 망설여 진다	3.44	2.92	4.27***	3.22	3.03	1.17
한복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므로 양장을 선호한다	2.92	2.34	4.13***	3.06	2.30	4.23***
나의 다음 세대도 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2.64	2.82	-1.34	2.60	3.00	-2.01*
입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로 한복을 입지 못한다	2.20	2.45	-1.56	2.30	2.50	-1.18
시대극 같은 영상물에 나오는 한복은 아름답다	3.12	3.03	0.73	3.04	3.27	-1.54
한복관련 정보물(신문, 잡지)을 관심 있게 살펴본다	1.84	2.37	-3.75***	1.90	2.47	-3.20**

* $p < .05$, ** $p < .01$, *** $p < .001$

〈표 5〉 한국가정의 전통한복 보유실태

전통한복 보유	없음	1벌	2벌	3벌	4벌	5벌	합계
성인여자한복	46 (18.5%)	128 (51.4%)	49 (19.7%)	18 (7.2%)	5 (2.0%)	3 (1.2%)	249 (100.0%)
성인남자한복	110 (44.2%)	115 (46.2%)	16 (6.4%)	2 (0.8%)	5 (2.0%)	1 (0.4%)	249 (100.0%)
여성 두루마기	178 (71.5%)	68 (27.3%)	2 (0.8%)	1 (0.4%)			249 (100.0%)
남성 두루마기	201 (80.7%)	45 (18.1%)	2 (0.8%)			1 (0.4%)	249 (100.0%)
여자아이 한복	217 (87.1%)	27 (10.8%)	4 (1.6%)			1 (0.4%)	249 (100.0%)
남자아이 한복	231 (92.8%)	14 (5.6%)	2 (0.8%)		1 (0.4%)	1 (0.4%)	249 (100.0%)
부모님한복	248 (99.6%)	1 (0.4%)					249 (100.0%)

〈표 6〉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전통한복 보유실태

전통한복 보유	없음	1벌	2벌	3벌	4벌	5벌	합계
성인여자한복	21 (20.2%)	83 (79.8%)	-	-	-	-	104 (100.0%)
성인남자한복	34 (32.7%)	70 (67.3%)	-	-	-	-	104 (100.0%)
여성 두루마기	78 (75.0%)	-	26 (25.1%)	-	-	-	104 (100.0%)
남성 두루마기	81 (77.9%)	-	23 (22.1%)	-	-	-	104 (100.0%)
여자아이 한복	86 (82.7%)	-	-	18 (17.3%)	-	-	104 (100.0%)
남자아이 한복	79 (76.0%)	-	-	-	25 (24.0%)	-	104 (100.0%)
부모님한복	103 (99.0%)	1 (1.0%)	-	-	-	-	104 (100.0%)

〈표 7〉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 가정의 한복착용실태

전통한복착용		안입는다	1~2번	3~4번	5~10번	10번이상	합계
20대 여성	한국	20 (40.0%)	30 (60.0%)	-	-	-	50
	베트남	21 (28.8%)	45 (61.6%)	7 (9.6%)	-	-	73
30대 여성	한국	28 (56.0%)	21 (42.0%)	1 (2.0%)	-	-	50
	베트남	8 (26.7%)	21 (70.0%)	1 (3.3%)	-	-	30

로 판단되어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분리하여 정리하였다.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전통한복 보유실태를 비교해본 결과 두 집단의 한복 보유하지 않은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보유 별수를 살펴보면 베트남 다문화가정에 비해서는 한국 가정의 보유별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일년 중 한복착용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일년 중 한복착용회수를 선다형으로 질문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았다. 20대와 30대 모두 한국여성이 베트남 여성에 비해 일년에 한 번도 안입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복착용비율은 한국가정에 비해 오히려 베트남 다문화 가정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3) 베트남 다문화가정과 한국가정의 자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차이

자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한국의 전통복식인 한복과 베트남의 전통복식인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아래 <표 8>과 같다.

한복에 대한 태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여성의 연령대와는 상관없이 자국 전통의상에 대한 자부심과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한국여성에 비해 베트남 여성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 세대에 계속해서 입었으면 하는 바램과 자국전통복식에 대한 정보물을 관심있게 살펴보는 것도 한국 여성에 비해 베트남 여성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베트남 전통복식인 아오자이의 경우 현재 베트남 여성의 예복 뿐 아니라 근무복, 여학생 교복으로까지 폭넓게 입혀지고 있는 반면

한복은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상적으로 착용하였으나 이제는 거의 일상복으로 착용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국전통복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베트남 여성에 비해 한국여성이 더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 고유복식인 한복에 대한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 가정 여성들의 의생활실태를 파악하여 한국 가정의 여성들과 비교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의생활 문화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가정 250가구와 베트남 다문화가정 104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의생활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베트남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의복행동을 의복 가치관, 의복 쇼핑성향, 의복 구매행동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한국가정 여성들에 비해 유행추구, 사회적 지위 반영, 고가상표지향적인 가치관은 낮게 나타났으며, 패션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고, 동조적 쇼핑성향이 한국여성에 비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 다문화 가정 여성들은 의복 구매를 대형마트와 일반 시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었으며, 의복 구매에 낮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소극적인 의복행동을 보여주고 있었다.

<표 8> 한국가정과 베트남 다문화가정 여성의 자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차이

한복에 대한 태도	20대 여성			30대 여성		
	한복	아오자이	t	한복	아오자이	t
OOO은 아름다운 민속의상	3.26	3.58	-2.69**	3.32	3.73	-3.18**
나는 OOO에 대해 자부심	2.88	3.58	-5.61***	2.88	3.60	-4.83***
보기엔 좋으나 활동성 때문에 입기에는 망설임	3.44	2.77	4.71***	3.22	2.83	2.67**
OOO은 시대에 뒤떨어져 보임 양장차림 선호	2.92	2.23	3.95***	3.06	2.30	3.66***
다음 세대도 OOO을 입었으면 좋겠음	2.64	3.05	-2.69**	2.60	3.27	-3.41***
경제적인 이유로 OOO 입지 못함	2.20	2.41	-1.25	2.30	2.27	0.23
시대극에 나오는 OOO은 아름답음	3.12	3.18	-0.49	3.04	3.30	-1.94
OOO관련 정보물을 관심 있게 살펴봄	1.84	2.95	-8.12***	1.90	2.90	-6.11***

* $p < .05$, ** $p < .01$, *** $p < .001$

둘째, 베트남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를 한복에 대한 태도, 아오자이에 대한 태도, 한복 보유 및 착용실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한복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복에 대해 가지는 부정적인 태도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여성에 비해 자국 전통복식에 대해 가지는 자긍심, 차세대 전수 의지, 관심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한복 보유정도는 비슷했으나 한국여성에 비해 베트남 결혼이주 여성이 한복 착용빈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복 가치관과 의복행동 및 각 국 전통복식에 대한 태도를 살펴봄으로써 서로 극복되어야 할 문화적 차이를 명확히 하고 향후 사회통합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향후 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의생활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양적연구방법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한 개인의 의복 행동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다문화가정연구의 경우 질적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좀 더 심도 깊은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는 베트남 다문화가정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미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중국(한족 및 조선족), 일본 그리고 필리핀 등의 다른 나라들에 대한 이해 또한 중요하다. 그러므로 결혼이주여성들의 다양한 출신국별 문화권간 차이를 이해하고 한국 문화적응에 미치는 서로 다른 영향을 파악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된다면 성공적인 다문화사회 정착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과 한국가정의 사회 경제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형성되어 있어, 도심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한국가정 여성들과 비교하는 것이 부적합할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같은 지

역에 거주하면서 비슷한 경제적 수준을 가진 사람으로 통제하여 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더 정확한 연구 결과 도출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된다.

참고문헌

- 1) 『다문화가족 지원법』 (2013), 제 2조 제 1항.
- 2) 보건복지가족부 (2008), 국제결혼이민자 및 국제결혼이혼 통계자료, p. 1.
- 3) 하명타잉 (2005), 1992년 이후 한국과 베트남 사이의 국제결혼에 대한 연구-베트남 여성의 문화적 적응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7.
- 4) 통계청 (2011), *다문화인구동태통계*, pp. 1-10.
- 5) 하명타잉, *op. cit.*, pp. 9-11.
- 6) 김현재 (2007), 베트남 여성의 한국으로 결혼이민: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한 고찰, *동아연구*, 52, pp. 219-254.
- 7) 장진경, 전종미, 신유경 (2009), 심층면접을 통한 다문화가족의 레질리언스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7(6), pp. 21-38.
- 8) 윤상석, 이동은 (2012), 다문화가정의 대화분석 연구-부모 정체성의 회귀적 구성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56, pp. 149-181.
- 9) 홍종명 (2012), 다문화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탐색적 연구-결혼이민자 모국어 사용 양상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6(3), pp. 279-302.
- 10) 김연수 (2007), 서울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결혼행복감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1, pp. 1-36.
- 11) 박용순, 송진영, 이순자 (201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관한연구: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6(2), pp. 88-110.
- 12) 성현란 (2011), 남편의 성역할 고정관념, 다문화 감수성 및 아내문화수용이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결혼 및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국경북지역 다문화가정, *한국심리학회지*, 17(2), pp. 219-239.
- 13) 이영주 (2007),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에 따른 적응요인: 위협요인과 보호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3(1), pp. 79-101.
- 14) 박현선 외 (2012),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이중문화적 양육 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pp. 365-388.
- 15) 최병두, 김영경 (2011), 외국인 이주자의 관련 정책 및 지원활동에 관한 인식,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4), pp. 357-380.
- 16) 황미혜 (2011), 결혼여성 이민자의 인권문제와 사회통합복지 방안연구, *다문화와 평화*, 5(1), pp. 1-28.
- 17) 최인려 (2011), 다문화 가정의 의복 실태와 섬유 선호도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9(4), pp. 863-875.
- 18) 이윤정 (2010), 다문화가정 여성의 의생활착의습관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1(3),

- pp. 395-410.
- 19) 최인려, *op. cit.*, pp. 863-875.
 - 20) 이윤정, *op. cit.*, pp. 395-410.
 - 21) KORA (2012), 2012년 베트남 경제전망, pp. 1-3.
 - 22)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2012", 자료검색일 2013. 7. 25,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2/02/pdf/text.pdf>
 - 23) 하밍타잉, *op. cit.*, pp. 23-24.
 - 24) 신유경, 장진경 (2010), 문화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본 베트남 다문화 가족의 가족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4(3), pp. 109-122.
 - 25) 부싯투이 (2006), *베트남 사람들*, 배양수 역, 서울: 대원사, pp. 221-225.
 - 26) 채옥희, 홍달아기 (2007), 베트남 결혼이민자의 한국 생활적응 사례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1), pp. 61-73.
 - 27) 양선화 외 (2004), 외국인 주부의 인권과 복지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16, pp. 127-149.
 - 28) 하밍타잉, *op. cit.*, pp. 1-3.
 - 29) 이윤정, *op. cit.*, pp. 395-396.
 - 30) 하밍타잉, *op. cit.*, p. 59.
 - 31) 최인려, *op. cit.*, pp. 863-875.
 - 32) 이윤정, *op. cit.*, pp. 395-410.
 - 33) Shim, S. & Chen, Y. Q. (1996), Acculturation Characteristics and Apparel Shopping Orientations: Chinese Students and Spouses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Residing in the Southwest,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4(3), pp. 204-215.
 - 34) 이윤정, 이재일 (2004), 이차원적 문화적응이론을 토대로 한 한국계 미국인 소비자들의 패션 및 쇼핑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8(12), pp. 1545-1553.
 - 35) Gbadamosi, A. (2012), Acculturation: An exploratory study of clothing consumption among Black African women in London (UK), *Journal of Fashion Marketing and Management*, 16(1), pp. 5-20.
 - 36) Youn, S. & Lee, K. (2012), Acculturation, Cultural Orientation, and Clothing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lothing and Textiles*, 36(6), pp. 641-652.
 - 37) 이희남, 한승희 (2006), 한국과 일본 대학생의 전통복식에 대한 인식차이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0(4), pp. 623-632.
 - 38) 조우현, 김문영 (2010), 한복의 소비자 인식에 관한 연구, *복식*, 60(2), pp. 130-143.
 - 39) 최선형, 정인희, 강순제 (1998), 한국도시여성의 한복 착용에 대한 의식-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복식*, 35, pp. 253-264.
 - 40) 황춘섭 (1977), 우리나라 옷에 대한 현대인의 의식과 착용실태에 관한연구-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복식*, 1, pp. 119-128.
 - 41) 최영미, 조효순 (1989), 한복의 구매실태 및 구매요인에 관한 분석연구-서울시내 거주하는 주부를 중심으로-, *복식*, 13, pp. 135-150.
 - 42) 두산동아, "베트남의 문화", 자료검색일 2013. 7. 25,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77638&mobile&categoryId=200000970>
 - 43) 하밍타잉, *op. cit.*, pp. 58-60.
 - 44) 정인희, 최선형, 강순제 (2007), 한국 도시 여성의 한복착용에 대한 의식-서울, 대전, 부산을 중심으로, *복식*, 35, pp. 253-264.
 - 45) 광태기, 남미우 (2002), 남녀대학생의 라이프스타일고 한복의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복식*, 52(4), pp. 25-38.
 - 46) 최선형, 정인희, 강순제, *op. cit.*, pp. 253-264.
 - 47) 이주현 외 (2001), 현대 한국인의 한복 착용, *한국의류학회지*, 25(1), pp. 37-49.
 - 48) 황춘섭, *op. cit.*, pp. 119-128.
 - 49) 이희남, 한승희, *op. cit.*, pp. 623-632.
 - 50) 이주현 외, *op. cit.*, pp. 37-49.
 - 51) 임성경, 한명숙 (2008) 한국과 미국 여대생의 문화에 따른 의복가치관의 비교연구, *복식문화연구*, 16(4), pp. 619-633.
 - 52) 임성경 (2006) 문화의 차이에 따른 의복 가치관과 의복구매행동 비교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6-75.
 - 53) Hsu, Hsiu-Ju. (2003), National Culture and Clothing Values: A Cross-national Study of Taiwan and United States Consumers, Doctoral Thesis, Oregon State University.
 - 54) 이은영, 정인희 (2010), *의류학연구방법론*, 서울: 교문사, pp. 98-99.
 - 55) 김세희, 이은영 (2004), 의복 쇼핑 성향의 개념적 구조 규명, *한국의류학회지*, 28(6), pp. 830-841.
 - 56) 임경복 (2006), 의복관여도에 따른 쇼핑가치와 의복쇼핑성향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4), pp. 65-74.
 - 57) 황진숙, 양화영 (2006), 청소년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의복쇼핑성향과 의류제품의 인터넷 구매행동, *한국의류학회지*, 30(1), pp. 71-82.
 - 58) 정인희, 최선형, 강순제, *op. cit.*, pp. 253-264.
 - 59) 권수에, 최종명, 이은경 (1998), 한복의 착용실태와 구매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7(1), pp. 129-138.
 - 60) 조우현, 김문영, *op. cit.*, pp. 130-143.
 - 61) 채옥희, 홍달아기, *op. cit.*, pp. 61-73.
 - 62) 신유경, 장진경, *op. cit.*, pp. 109-122.
 - 63) 하밍타잉, *op. cit.*, p. 59.
 - 64) 최인려, *op. cit.*, p. 874.
 - 65) 이윤정, *op. cit.*, p. 408.